



대선 주자 4인 4색... 공약은 '대동소이'

국민의힘 제주 합동토론회 지역공약 내세워 차별화 총력 2공항과 4·3 문제 등 '이구동성'... 발전전략 미흡 지적

국민의힘 제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은 13일 제주KBS에서 열린 두번째 합동토론회에서 제주 관련 공약 발표에 이어 제주 현안을 둘러싼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제주 4·3 해결=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완전한 해결을 강조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비롯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더큰인센티브의 지속 추진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국정운영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제2공항

건설에 중점을 뒀다. 제2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유 전 의원은 "동부 지역에 스마트혁신도시를 건설해 배후산업을 키우고,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역설했다.

홍준표 의원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제주도를 골프, 해양 요트, 승마 등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관광 휴양 중심이자 카지노 프리 지역인 라스베이거스식 컨벤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관광정책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여러 부서 소관으로 나눠져서 보니 업무가 분산돼 전문성이 약하다.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에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후보 전원 제주 제2공항의 신설의 당위성을 주

장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 전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7년 간 계속 추진해왔다. 주장이 아니라 국토부와 함께 진행해왔다"며 "현재 도민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취합해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제주의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며 "걸림들이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인공섬까지 포함해 입지를 재검토해 반드시 건설해내겠다"고 공언했다.

홍 의원 역시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제대로 건설돼서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4차산업을 유치해서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제주발전의 비전은 제주특별법에 나와있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며 "제2공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4·3 해결=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완전한 해결을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이 이념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4·3을) 보고, 불신도 깔려 있는 등 도민 사회에 국민의힘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후보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깨끗이 약속한다면 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오해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다"며 "보수정당 대통령들이 추념식에 참석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 시절에도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제주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왼쪽부터 두 번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승복... 민주당 본선 체제 전환

경선 후폭풍 사흘만에 일단락 이재명 '손 잡고 함께 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경선 종료 사흘 만에 이뤄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대표도 이에 승복하면서 경선 결과를 둘러싼 당의 내용도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당무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무위는 지금 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 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당규에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결은 76명의 당무위원 중 64명이 합의·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발표된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키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 이튿날인 11일 당에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무효표가 없으면 이 후보의 득표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2위인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당무위에서도 14명의 참석자가 발언 기회를 얻어 당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 끝에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화한 당 선관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당무위는 이 조항이 결선투표 조건을 규정하는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사후에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에서 기존 해석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득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향후에도 대선 경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문은 최대한 보완해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회의 후 "함께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표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선 종료 후 침적하던 이 전 대표도 당무위 결정이 나온 지 1시간 50분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무위의 최종 유권해석과 이 전 대표의 공식 승복 선언으로, 민주당 경선 결과발표 후 이어진 후폭풍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당면 과제인 대장동 국감 준비와 원팀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붙이며 본선 체제로 본격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후보님은 대승적 결단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며 "민주당은 한마음으로 더 큰 전장에서의 승리,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더욱 매진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의를 위해 결단 내려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다"고 감사사를 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분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제주 대회전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평화공원 참배·간담회 등 진행

국민의힘 제3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가 13일 제주를 찾아 숨겨진 일정을 소화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20분 제주4·3평화공원 참배 후 4·3 평화공원에서 유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오전 11시 20분 제주시 연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당직자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원 전 지사는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4등을 했지만 맞수 토론을 할 때 마다 추월과 도장 깨기가 일어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기대하지만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결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0분 제주4·3평화공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 10시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전 10시 40분 당원간담회를 진행했다.

유 전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

주의 경우 항공교통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기본계획까지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후보자인 성산읍이 아닌) 입지를 열어두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후 오후 3시 도당사에서 열리는 국민캠프 제주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후 오후 3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유 전 총장은 제주 관련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실한 자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주에 문

제부 산하 외청인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제주에 항공기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항은 더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공항이 성산 쪽에 가야 하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민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토론회만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광주·전북·전남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31일까지 10차례 토론회를 거치고 내달 3~4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5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강대해기자

2021년 제주자연 학습 및 환경의식 개선 운동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총 6회에 걸쳐 꽃자왈·올 등지에서 자연경관 활동을 합니다. 환경교육 전문가가 함께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제주도자원봉사센터 (지역-제주시, 봉수분야-환경보호-환경정화) 참가자 전원 1365 포털사이트 가입 필수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

■ 일시 및 장소

일 자	장 소	신청마감일
21.10.17	저지꽃자왈(한경면)	21.10.15
21.10.23	동거문오름(구좌읍)	21.10.21
21.10.30	화순꽃자왈(안덕면)	21.10.28
21.11.06	느리리오름(한림읍)	21.11.04
21.11.13	지미봉(구좌읍)	21.11.11
21.11.20	정물오름(한림읍)	21.11.18

※ 마감 시간은 마감일의 17:00입니다.
※ 행사일 기준 2주내에 타지역 방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
1회당 최대 20명 (참여 인원은 선착순 마감합니다. 버스도 이동 - 개별 차량 이용 가능)

■ 집결지 및 출발시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 오전 08시 30분
※ 발열체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은 필수입니다.
※ 자원봉사시간 인정(최대 3시간, 이동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

■ 문의
카카오톡 채널 -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할인 이벤트!!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10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기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사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층돌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서리 사거리 삼검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그랜드보청기
제주시서리사거리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시청 CGV 광안사거리

대표 임정환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